

경남대학교 <독서와 토론>과 '글쓰기'의 통합 검토 및 제안*

조성숙**

|| 차례 ||

- I. 들어가기
- II. 의사소통교육의 현황과 분석
- III. 평가 및 방향
- IV. 나가기

【 】

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교육 또한 바뀌어야 한다고 이야기된다. 경남대학교도 K-CESA의 평가에 주목하여 의사소통 영역의 변화를 고민하고 있다. 특히 쓰기와 말하기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본 연구자는 이것의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현재 경남대학교의 교양교육은 '읽기-말하기-듣기-쓰기의 통합된 의사소통영역 교과목'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4가지 역량을 모듈화하여 능력기반 교양기초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독서와 토론> 교과목과 '쓰기' 역량을 통합하는 방안을 점검해 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먼저 경남대학교 의사소통교육의 역사적 흐름을 살폈다. 이어서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의사소통 교육의 9가지 필수 평가요소를 통해 학습자의 특성, 교수자의 특성, 교재의 구성과 수업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경남대학교의 통합교과 실현은 어려운 것으로 논의하였다. 경남대학교의 지역적 특성상 통합보다는 의사소통 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분화된 교수과정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과 교수방법에 대한 고민이 더 시급함을 주장하였다.

* 이 연구결과물은 2018학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경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주제어: 독서, 토론, 글쓰기, 말하기, 의사소통교육, 통합 교과목

I. 들어가기

우리는 대부분 대한민국의 교육에서 ‘사교육과 암기력을 근간으로 하는 교육과정’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미래 사회의 변화를 야기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 인간 삶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상 앞에서 대한민국이 이러한 교육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교육발전을 통한 각 영역으로의 상승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2015년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 간담회’가 개최된 것은 교육혁신을 위해 국가, 기업, 대학이 연계해야 한다는 인식을 앞세운 것이며, 2016년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 시안을 발표한 것도 교육문제의 시급한 전환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고민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융합이다. 성균관대학교 최인수 교수는 이들의 공통점을 ‘연결’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그는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창의성’과 ‘정서지능’이다”라고 주장하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AI연구팀의 연구보고를 인용하기도 하였다.¹⁾ 이러한 능력은 단순 감각의 직관에서부터 고등한 문해 교육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과 창조성, 다양한 의사소통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에 발맞춰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경남대학교도 교양 과정에서 대

1)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주관한 ‘심리학, 인간을 말하다’라는 강연에서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인재개발학과 최인수 교수가 ‘창의성을 위한 긍정심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에서 발표하였다. 본고의 위 내용은 이 강연 자료에서 참고한 것임.

학생들의 핵심역량 중 하나인 의사소통교과목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창의 글쓰기>, <독서와 토론>, <발표와 토론>, <공학글쓰기>로 세분화되어 있다. 하지만 K-CESA에서 경남대학생의 의사소통 역량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특히 쓰기와 말하기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의 대응책으로 '단기적인 모듈형 교육과정'으로 변환하고자 하는 경남대학교의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이 '읽기-말하기-듣기-쓰기의 통합된 의사소통영역 교과목'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4가지의 역량을 모듈화하여 능력기반 교양기초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독서와 토론' 교과목과 '쓰기'역량을 통합하는 방안을 점검해 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독서 토론은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활동을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사고와 표현 능력의 개발을 위한 교양교육의 토대가 될 수 있다'²⁾고 한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것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생각하고 표현할 줄 아는 인간'³⁾으로 교육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논증적 글쓰기와 교육 토론 수업이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정희모는 주목할 만한 모형으로 '읽기-쓰기'를 제안하고 있다. 쓰기와 읽기를 구분되지 않는 과정으로 보고 글을 쓰다보면 많은 책을 읽게 되는데 이런 텍스트들이 미생성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대학에서 '읽기-쓰기' 모형을 적용시킬 경우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 높은 차원에서 읽기 능력을 배양하고, 쓰기 과정이 독립적인 과정이 아니라 도구과목으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⁴⁾ 이내관·이영조(2017), 송주현(2016)은

2) 신희선(2012), 『대학 교양교육에서 <인문학독서토론> 수업 사례』, 『사고와 표현』 5(1), 한국사고와표현학회, p.9.

3) 도정일(2007), 『실천 인문학의 한 방법 - 사고와 표현은 왜 중요한가』, 『사고와 표현 학회 창립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사고와 표현학회.

통합글쓰기 측면에서 독서와 글쓰기 영역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읽는 것보다는 시각적 이미지가 발달되어 있는 시대의 특성상 우려되는 점이 있다. 첫째, 독서와 글쓰기 통합은 독서 또는 글쓰기 영역을 알게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독서가 글쓰기에 종속되든지 글쓰기가 독서에 종속되어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은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된 수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독서와 토론이 글쓰기와 통합되어 의사소통 전 영역을 활발하게 일으키는 수업이 가능한지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경남대학교 의사소통교육의 현황을 분석하여 <독서와 토론> 교과목이 <글쓰기> 교과목과 통합될 수 있는지를 점검할 것이다. 뒤이어 <독서와 토론>의 학습자, 교수자, 교재의 구성과 수업방법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새통합 교과목의 실현 여부를 논의하고, 이에 따른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II. 의사소통교육의 현황과 분석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수용자가 아닌 창출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습자는 사회에 진입한 후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 상황에 대해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가 되어야 한다. 현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대학 교양 교육의 심화를 촉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⁵⁾

이에 대학들은 대학 교양교육의 체계를 구축하고, 그것을 안정적으로 운

4) 정희모(2005), 「대학 글쓰기 교육과 방향」, 『작문연구』 창간호, pp.125-126.

5) 최중철(2007), 「한국대학교양교육의 역사와 교훈」, 『교양교육연구』 1(1), 한국교양교육학회, p.209.

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의해 비약적으로 발전한 부분이 대학 글쓰기 교육이다. 대학 글쓰기는 의사소통능력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와 학술적 글쓰기 능력을 필요로 하는 대학의 요구가 상통하면서 관련 교과목들이 개발되었다.⁶⁾

경남대학교는 모든 학생이 반드시 수강해야 할 기초교과목으로 의사소통 교과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의사소통 영역 중 쓰기역량을 중고등학교의 글쓰기 교육과 연계하고, 전공을 능숙하게 수행할 목적으로 1980년 <대한국어>를 개설하였다. 이것은 80년대 후반에 <작문의 이론과 실제>⁷⁾라는 과목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이후 <작문의 이론과 실제>는 2003년까지 1학년을 대상으로 대학의 글쓰기를 주도해왔다. 이 과목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글쓰기와 의사소통>으로 이름을 달리하였다. 이를 2009년 <글을 쓰는 기술>로 개정하였고, 이때 2007년 판의 목차에 있던 '제5장, 의사소통'⁸⁾을 제외하였다. 2016년에 <글쓰기와 의사소통>을 <창의글쓰기>로 개정하면서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대상을 조정하였다. 쓰기 역량을 더 효율적으로 함양하기 위해서 학습자들을 상향조정한 것이다. 2018년에 2·3학년을 대상으로 한 과목으로 변경하였다.

이처럼 글쓰기 과목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번의 글쓰기 교재 개정과 학습대상을 변경하고 새로운 명칭으로 개설하게 된 것은 교양 글쓰기가 대학의 전공 글쓰기와 연계되고, 수동적 글쓰기 주체에서 능동적

6) 김화선·이희영(2016), 『대학 글쓰기교육의 현황 진단과 발전방안 연구』, 『대학교양교육연구』 1(1), pp.107-108.

7) 198x년부터 2003년까지 <작문의 이론과 실제>가 이행됨.

8) 2007년 <글쓰기와 의사소통>에 수록된 '제5장 의사소통'의 목차는 이러하다. "1. 의사소통이란 무엇인가? 2. 대화의 조직과 원리 3. 면접시험의 절차와 요령 4. 토의의 효과적인 방법 5. 토론의 전개와 실제 6. 발표의 요건과 결과" 이는 말하기 역량에 집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007년 <독서세미나> 개설로 이 부분이 빠진 것으로 보인다.

글쓰기 주체로 바뀌도록 함에 있다. 또한 ‘나’를 주어로 하는 것에서 더 큰 사회적 공동체로 관심을 돌리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교양 글쓰기의 책무로써 인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학 교양 글쓰기의 책무〉⁹⁾

분류	교육 전	대학교양 글쓰기의 책무	교육 후
절차의 전이	대학 이전의 글쓰기	정점다리로서의 기능	대학의 전공 글쓰기
주체의 전이	수동적 글쓰기 주체	사유하는 힘의 강화	능동적 글쓰기 주체
필자 위치의 전이	개인	표현하는 힘의 강화	담화 공동체

물론 위의 표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글쓰기를 통해 “글쓰기 주체가 사적인 감정을 토로하는 글쓰기를 경험하는 주체에서 공적 영역인 글쓰기의 담화공동체 규약을 내면화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변환하게 될 것”¹⁰⁾임은 동의하지만, 글쓰기만으로는 담화 공동체의 적극적인 구성원으로 편입되기 어렵다. 곧, 큰 담화 공동체인 사회로의 진출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개진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기초 글쓰기’만으로는 미흡하다. 따라서 “다양한 입장의 가능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나와 주변 삶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도모하는, 다른 이의

9) 이희영(2016), 『표현주의와 인지주의 통섭적 글쓰기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23-24.

10) 김화선·이희영, 앞의 논문, p.9.

체험과 성찰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나아가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수사적 맥락을 고려해가며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 문제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¹¹⁾

이러한 측면에서 2007년부터 경남대학교 의사소통교육은 인문사회계 <글쓰기와 의사소통>·이공계의 글쓰기 <기술보고서 작성법>, 이공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말하기에 집중하는 <발표와 토론>, 인문사회계 학생들을 위한 읽기에 초점을 둔 <독서세미나>(2007)로 확대 개편되었다. 2016년 <독서세미나>는 <독서와 토론>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때 이공계 <발표와 토론>과 인문사회계 <독서와 토론>은 과목명을 <독서와 토론>으로 통합하였다. 그러나 공학인증제로 인하여 내용적으로는 분리하여 수업을 이행하였다. 2018년부터는 공대와 인문사회계의 이원화된 체제는 없어질 전망이다.

위와 같은 글쓰기의 보완과 분화는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융합적이고 인문학적인 소양을 길러야 한다는 인식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곧 이러한 변화는 모든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보편적 교양교육을 지향하여 2016년 8월부터 교양 융합교육 체제가 구축하고자 하는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강좌개설 기준년도로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1) 구자황(2007), 「대학 글쓰기 교육을 위한 예비적 고찰」, 『어문연구』 53, 어문연구회, pp.293-294.

〈인문사회 의사소통 교과목 강좌 개설 기준〉¹²⁾

년도	인문사회 의사소통 교과목
1980 ~	국어
198x ~ 2003	작문의 이론과 실제
2004 ~ 2006	글쓰기와 의사소통(1학년), 독서세미나(2학년)
2007 ~ 2015	글쓰기와 의사소통(1학년), 발표와 토론(공과대 1학년), 독서세미나(2학년)
2016 ~	창의글쓰기(2학년), 독서와 토론(1학년)
2018 ~	창의글쓰기(2·3학년), 독서와 토론(1학년), 공대글쓰기(3학년)

현재 인문사회계 의사소통 교과목으로는 <창의글쓰기>와 <독서와 토론>이 운영되고 있다. 수강 인원을 30명으로 하향 조정하여 학습자의 효율이 증대되고 교수자의 학습목표가 과목의 특성에 맞춰 잘 달성되도록 주력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운영되는 <창의글쓰기>와 <독서와 토론> 과목학습목표를 비교해 보면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과목명	과목학습목표
창의 글쓰기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글쓰기의 필요성을 깨닫고 글쓰기의 윤리를 인식한다.
	글쓰기의 상황, 목적, 내용에 따라 필요한 다양한 전략을 이해하고 사용한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쓰기와 다른 언어사용능력을 통합적으로 발전시킨다.
	쓰기에 필요한 단어와 문장패턴, 단락 구성의 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한다.
독서와 토론	제한서, 자기소개서, 학술적인 글, 논증하는 글 등 학술과 직무에 필요한 장르의 글을 작성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고쳐 쓰기 한다.
	관련 텍스트를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다.
	2. 글의 주제와 관련된 토론 주제를 이끌어낼 수 있다.
	3.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
	4. 토론 방법을 익힐 수 있다.

12) 이는 인문사회 의사소통영역 과목을 펼쳐놓았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공과대 2·3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보고서 작성법>이 개설되었다. 이는 2016년부터는 공과대 3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8년부터는 <공대글쓰기>로 전면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다.

<창의글쓰기>의 과목학습목표는 글쓰기의 필요성과 윤리(목표 1), 글쓰기의 기초(목표 4)와 다양한 글쓰기(목표 2·5), 의사소통의 통합적 수업(목표 3)으로 이루어져 있다. <독서와 토론>의 과목학습목표는 제대로 된 읽기(목표 1·2), 토론 방법과 절차를 통한 말하기(목표 3·4)로 요약된다. 이는 표준과목개요에 잘 드러나 있다.

창의글쓰기	독서와 토론
<p>본 교과목은 대학생들에게 글쓰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깨닫고 글쓰기의 상황, 목적, 내용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글을 쓰는 방법을 이해하며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과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u>글쓰기는 듣기, 말하기, 읽기와 연관되어 있는데, 적절한 읽기와 토론 활동을 통하여 글의 주제를 발전시키고 내용을 풍부하게 하며 더 효과적인 표현을 개발할 수 있고, 글쓰기를 통해 논리적이고 조리 있게 말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교과목의 초점은 글쓰기 능력 개발에 있지만 적절한 읽기, 토론, 말하기 등의 활동과 연계시켜 진행한다.</u> 또한 이 교과목은 단어와 문장패턴 선택, 단락 구성과 같은 글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에 대하여 다루며 제안서, 자기소개서, 보고서, 논증하는 글 등을 연습할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 교과목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고급 글쓰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며 전공 수업과 고급 글쓰기 과목, 글쓰기 센터 상담 등을 통해 글쓰기 능력을 더 개발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p>	<p>본 교과목은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통교양(필수)과목이다. 이 과목을 통해서 학생들은 대학 교육과정의 이수에 필요하며 나아가 사회가 요구하는 의사소통능력의 기초를 다지게 될 것이다.</p> <p>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은 교재에 수록된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여 토론 문제를 이끌어 내고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표현과 소통에 필요한 경험을 쌓아 의사소통능력을 키우게 될 것이다. 나아가 다양한 주제에 대한 독서 능력도 키우게 될 것이다.</p> <p>따라서 본 교과목은 공통교양과목인 <글쓰기와 의사소통>과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글쓰기와 의사소통>이 '글쓰기'에 초점이 있다면 본 교과목은 '읽기'와 '토론'에 초점을 두고 있다.</p>

위의 표준과목개요의 밑줄 그은 부분은 <창의글쓰기>가 다른 의사소통 역량과 밀접하고, 적절한 읽기, 토론, 말하기 등의 활동과 연계하는 수업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경남대학교의 『창의글쓰기』 교재의 읽기 자료는 글의 기법이나 방법과 관련된 예시자료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기초글쓰기에 적절한 읽기의 양이며 성격이다. 따라서 기초글쓰기에는 긴 지문이나 많은 양의 읽기 텍스트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글쓰기의 수단 격으로 이행되는 토론은 찬반을 나눈 주제 토론이라기보다는 ‘생각 나누기’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글쓰기를 위한 토론은 실제적인 토론의 방법이나 자료를 찾아 읽고 숙고하여 토론에 임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만약 <창의글쓰기>가 3시간이라는 시수 확보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읽기’를 목표하는 글쓰기로 유도될 경우, 쓰기 영역의 과목 목표의 성취는 약해질 것이다. 또한 읽기 자료는 과제로 진행되어 학생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고질적인 글쓰기 수업 문제가 수정되지 않을 것이다.

반면, <독서와 토론>은 읽기와 말하기에 집중된 수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자연히 단순 읽기와 말하기, 생각 나누기를 넘어서는 교육이며, 독서를 통해 지식주체로서의 말하기를 목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문자가 발명된 이래 독서는 인간의 소통 능력을 키우는 강력한 방법이 되었다는 점과 독서를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한 자연과 인간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창의력과 상상력도 키울 수 있다는 점”¹³⁾을 강화하는 교과목을 목표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2016년 <창의글쓰기>가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독서와 토론>은 2학년에서 1학년으로 조정된 것은 다양한 독서를 통해 깊이 있는 사유 능력을 함양한 뒤에 글쓰기를 하겠다는 취지였을 것이다. 따라서 학년을 바꾸면서까지 시도되었던 의사소통교육 목표가 제대로 성취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현재 경남대학교는 쓰기와 읽기 역량이 더 치밀하게 교수되고 학습되도록 하기 위하여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라는 의사소통의 전 영역을 한 교

13) 경남대학교 교양기초교육원 독서와 토론 교재편찬위원회(2017), 『교양인의 독서카페』, 경남대학교출판부, p.2.

과목 내에 수용하는 교양필수과목 개설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읽기를 통해 심화글쓰기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한신대학교는 <사고와 표현> 수업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¹⁴⁾ 경남대학교와 달리 <독서>, <토론>, <글쓰기> 심화 강좌가 운영된다는 점에서 변별된다.

1학년 교양 필수(각 3시간 2학점)/ 수강정원 20명	
1학기	2학기
독서와 토론	글쓰기의 기초
↓	
2·3·4학년 교양 선택(심화, 3시간 3학점)/ 수강정원 20명	
<독서> 심화: <인문고전과 창의적 책임기>	
<토론> 심화: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창의적 말하기>	
<글쓰기> 심화: <주제탐구와 창의적 글쓰기>	

많은 대학들이 의사소통 통합교과로 전환하는 분위기에서 한신대학교의 교과 과정은 눈여겨 볼만하다. 따라서 경남대학교 <독서와 토론> 교과가 쓰기와 통합 연계되는 데 있어서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Ⅲ. 평가 및 방향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의사소통 교육의 필수 평가는 교과외의 편성, 운영, 지원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필수평가요소는 9개이다. 요약하면

14) 송주현(2016), 「대학글쓰기에 대한 반성과 발전적 수업을 위한 제언」, 『교양교육연구』 10(1), 한국교양교육학회.

다음과 같다.¹⁵⁾

- a. 쓰기와 말하기 영역을 포함한 교과목을 개설하였는가?
- b. 전담 교수들의 교육 경력은 얼마인가?
- c. 전담교수의 주당 수업 시간은 얼마인가?
- d. 교육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표준수업계획서가 있는가?
- e. 교과전용 최신 전문교재를 갖추고 있는가?
- f. 의사소통 교과목의 특성이 반영된 강의평가를 시행하는가?
- g. 의사소통 교육의 성과를 평가, 분석하는 등 의사소통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나 기구가 있는가?
- h. 의사소통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 중 전임교수 비율은 얼마인가?
- i. 전담 교수의 연구 및 면담 공간이 적절하게 확보되어 있는가?

발표자는 ‘II. 의사소통 교육의 현황과 분석’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9개의 평가영역 중 현실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학습자의 특성, 교수자의 특성, 교재의 구성과 수업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미 ‘a,d,e’에 대해서 앞서 말한 바 있기 때문이다.

1. 평가

1) 학습자의 특성

이 자료는 발표자가 학교에 제출한 바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가져온 것임을 먼저 밝힌다. 설문 학생들은 2018년 1학기 <독서와 토론>을 수강한 학생들이다. 유아교육과 35명으로 구성된 강좌였다. 첫 주 강의개관 시간에 학생들의 읽기와 말하기 역량을 살펴보고자 하여 아래와 같이 설문하였다. 이를 통해 <독서와 토론>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의 특성을 대략적으로

15) 홍성기(2016), 『교양교육 평가방안 연구』, 한국교양기초교육원, p.114.

알 수 있다.

A. 수강생 기초 설문지

설문지						
※ 본 설문지는 독서와 토론 강의를 위한 설문지입니다. 본 설문지는 수업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본 연구가 완료되면 즉시 폐기 처리할 것입니다.						
학과 :		학년 :		성별 :		담당교수 :
순	설문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책 읽는 것을 좋아합니까?					
2	독서물 중 좋아하는 장르가 있습니까?					
3	책을 읽고 발표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4	책을 읽고 독서감상문을 적은 경험이 있습니까?					
5	책을 읽고 요약할 수 있습니까?					
6	책을 읽고 토론한 경험이 있습니까?					
7	시사문제를 주제로 토론한 경험이 있습니까?					
8	독서토론에 참여한 적은 있습니까?					
9	토론을 위해 입론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10	<주장의 6하 원칙>을 작성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B. 수강생 기초 설문조사 결과표

수강생 수	35	응답자 수	30	응답률	≒ 85.71%
-------	----	-------	----	-----	----------

1. 응답자 양상					
학년	1	2	3	4	합계
여학생 수	30	0	0	0	30
비율(%)	85.71%	0%	0%	0%	

2. 독서의 선호도(1·2항목)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응답수	0	6	8	6	10
비율(%)	0%	20.66%	26.67%	20.00%	33.33%

3. 독후 활동 경험도(3·4·5항목)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응답수	0	6	10	13	1
비율(%)	0%	20.00%	33.33%	43.33%	3.33%

4. 토론의 생활화 정도(6·8항목)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응답수	0	0	12	10	8
비율(%)	0%	0%	40.00%	33.33%	26.67%

5. 토론 교육 경험도(7항목)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응답수	1	2	5	10	12
비율(%)	3.33%	6.67%	16.67%	33.33%	40.00%

6. 주장과 근거 작성도(9·10항목)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응답수	0	0	0	2	28
비율(%)	0%	0%	0%	6.67%	93.33%

C. 수강생 기초 설문조사 결과 분석

학습자들의 독서 수준은 낮다고 볼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자료를 읽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생소하게 여기는 분위기다. 독서 이해력 정도가 낮거나 읽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난제인 수업이 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따라서 수강생들의 설문에 대한 결과 분석은 다음과 같다.

평가항목	분석	개선사항
응답자 통계	○ 35명 중 30명이 응답했다.	
독서에 대한 관심도	○ 독서와 토론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수동적으로 토론을 한 번 해 보았다는 학 6명 있을 뿐이다.	○ 독서와 토론에 관심을 가지도록 여러 자료를 병행
독서의 깊이	○ 책을 읽고 요약하며 말하고 감상문을 쓰고 토론을 경험한 학습자들 비율이 매우 저조하여 독서의 깊이 또한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다양한 독후활동을 통하여 경험영역을 확대
토론의 생활화	○ '아니다'가 33.33%, '전혀 아니다'가 26.67%로 나타났다. 이를 합해 보면 '보통이다'의 40%보다 많다. 따라서 토론에 대한 불안이 있을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 토론이 생활 속으로 이어지도록 매 시간마다 충분한 자료와 시간을 제공하고 격려해야 할 것이다
토론 교육 경험도	○ '전혀 아니다'가 40%로 가장 많다. 독서 후 토론 교육이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입으로 설명만 하지 말고 단계단계를 밝이주는 것이 필요하다.
주장과 근거로 말하는 태도	○ '아니다'가 6.67%, '전혀 아니다'가 93.33%로 급상승하고 있다. 주장과 근거로 말하는 일상화된 훈련이 필요하다.	○ 발표할 때 토론의 기본자세를 갖추어 발표하도록 유도
종합	○ 독서와 토론에 대한 관심도가 미약하고 생활화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 구체적인 강의안 마련 필요

2) 교재의 특성과 수업방법

교재의 특성은 학제적 형태의 교수 과정을 운영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독서와 토론>의 교재인 『교양인의 독서카페』는 “경남대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인의 독서와 토론 능력 함양을 위한 길잡이 교재로서 편찬되었다.

동서양의 주요 고전에서 발췌·번역된 1부의 『읽기 연습』과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2부의 『읽기와 논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매우 짧은 글들이지만 해당하는 고전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이자 토론 주제를 이끌어내는 데 적합한 글들로 채워져 있다. 이 글들은 독서에서 고전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고전이 가진 현재적 의미를 생각하게 해 줄 것이다.”¹⁶⁾라고 교재 편찬의도를 ‘머리말’에서 밝힌 바 있다. 물론 전문이 아니고 발췌된 것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구분	내용
철학	플라톤의 <크리톤>, 최유진의 <원효>, 데카르트의 <방법서설>,
경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정약용의 <여전론>,
역사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법	헌법 제1장과 제2장,
윤리	김재현의 <임신증절>, 허순철의 <혼인의 자유와 동성혼인>
환경	배대화의 <원자력,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김종덕의 <로컬푸드와 로컬푸드 운동>, 김경복의 <생태시의 의미와 그 유형>
문학	배대화의 <문학과 현실>, 김재현의 <문화권력 이은상>, 김형태의 <문제반정파 표현의 자유>, 여조겸의 <느림과 빠름>
사회	강인순의 <여성혐오, 어떻게 볼 것인가?>, 이은진의 <빅데이터: 편리한가? 구속인가?>, 지주형의 <경제 민주화의 의미>, 감정기의 <복지시민으로 가는 길>
언론	김남석의 <알권리와 명예훼손의 충돌>, 안차수의 <메카시즘과 언론: 마녀사냥과 우상파괴>
정치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생명	찰스 다윈의 <자연 선택 또는 최적자 생존>
정신분석학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꿈은 소망의 충족이다>

위에서 보듯이 <독서와 토론>의 교재는 다양한 내용을 싣고 있어 학제적 기초 인문소양을 함양하는 데 미흡하지 않다. 그러나 ‘대학생이 미쳐야 할 읽기 수준’이 미비한 학생들이거나 편중된 독서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힘든 교재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교재의 구성상 중간고사 이전에는 읽기 중심으로, 이후에는 ‘토론을 위한 읽기’에 집중하여 교수되도록 하였다. 토론형태는 중간고사 전에 개

16) 경남대학교 교양기초교육원 독서와 토론 교재편찬위원회, 앞의 책, p.3.

방향 자유 토론형태로 진행한다. 이후에는 찬반 대립 토론형태를 띠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텍스트를 읽고 이해한 후, 찬반 대립 주제를 찾고, 토론 방법과 과정에 따라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II장'의 <독서와 토론> 표준과목개요를 근간으로 <교양인의 독서카페>라는 교재가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토론을 이끌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토론의 주제는 토의와 달리 찬·반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 교재는 양쪽의 시각을 다 가지지 않고 하나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글들도 있다. 교재가 토론주제의 어느 한 입장으로 치우치게 될 때는 학생들이 그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제2부, 읽기와 논점'의 내용이 찬반 대립 토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학생들의 편협된 시각을 교정할 수 있도록 찬반이 다 나타나도록 구성될 필요가 있다.

3) 교수자의 특성

현재 <독서와 토론>을 담당하는 교수자들은 다양한 전공을 갖고 있다. 이것은 광범위한 읽기 영역의 교수자들 역량이 증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 학기 초에 갖는 의사소통교육 세미나와 교수자들의 자발적인 윤독 모임은 교수자들의 다양성을 풀어놓는 자리가 되며, 교수방법의 기본적인 틀을 설계할 때 극대한 협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구분	커뮤니케이션학	문학	평생교육학	어학	수사학	교육학	정보통신학	국어교육	계
인원	2	12	1	1	1	1	1	1	20

이들 교수자들은 전임교수 5명, 나머지는 강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서와 토론> 과목의 개설 때부터 강의를 전담해 온 강의 베테랑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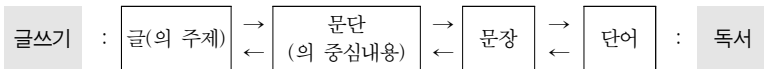
전담교수의 주당수업시간은 9~12시간으로 주어져 있으며, 강사들은 <독서와 토론> 2학점 강의를 기본적으로 3개씩 맡고 있다.

학기 마무리를 한 후 <독서와 토론> 교수자들끼리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세미나가 강좌 개설 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수자들의 다양한 전공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도 교수자들은 학생들의 읽고 말하는 역량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피드백을 할 만큼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한편, <독서와 토론>을 맡고 있는 교수자들은 표준교과목 목표를 기준으로 각자의 강의를 계획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교과목의 교수자들끼리 팀티칭을 통한 각자의 수업 성찰이 필요하다. 그런 만큼 스스로없이 자신의 수업방법을 동료 교수자들에게 내어놓는 용기가 더욱 요구된다.

2. 통합교과목 실현 목적과 유의점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영역은 한두 개의 개별 과목만으로 교육 목표를 완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고력 교육이나 문해 교육 등 연관 교육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다.¹⁷⁾ 뿐만 아니라 각 과목의 궁극적 지향점이 다르므로 특정 의사소통영역에 집중하여 교과목이 편성될 수밖에 없다.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쓰기와 읽기는 순환관계에 있다. 그러나 글쓰기는 ‘무엇을 쓸 것인가’를 고민하는 ‘주제 찾기’가 우선이지만, 독서는

17) 홍성기, 앞의 책, p.104.

읽기가 마쳐져야 그 글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글쓰기는 문단의 중심내용이 먼저 선행되어야 문장을 쓸 수 있지만, 독서는 문장들이 연결된 한 개의 문단을 모두 읽어야 만이 중심내용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결국 과목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남대학교 <독서와 토론>은 텍스트를 읽고 토론하는 과목이다. '<독서와 토론> + 쓰기'가 통합된 교과가 된다면 토론은 읽기와 쓰기의 징검다리 역할 정도만을 하게 될 것이며, 독서와 토론은 결국 쓰기 역량을 위한 수단이 될 것임은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러나 대학교양교육의 목표가 능력기반 강화와 밀접하므로 오늘날 각 대학들이 '읽고 말하고(듣고) 쓰는' 통합 교과, 일명 '고급 글쓰기' 또는 '심화 글쓰기'로 교과과정을 전환하는 분위기이다. 2011년 경희대학교의 『나를 위한 글쓰기』를 시작으로 덕성여자대학교의 『이해와 소통 II』, 서강대학교의 『읽기와 쓰기』, 성균관대학교의 『창의적 사고 소통의 글쓰기』, 중앙대학교의 『창의적 사고와 소통』 등은 통합글쓰기를 지향한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통합 추구의 변화는 “대학에서의 학문수행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며 학사과정 이후의 활동에서도 지속적으로 활용하게 될 기본적 능력을 함양하는 교과 영역”¹⁸⁾을 교양교육의 정의로 바라보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나아가 이는 대학의 본연인 교양교육의 강화와 대학의 전공학문 수행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도 의사소통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는 능력기반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고력과 표현 역량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은주¹⁹⁾는 덕성여대의 <독서와 표현> 사례를 통하여 제한적인 기초

18)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홈페이지(<http://liberaledu.snu.ac.kr/>).

19) 이은주(2011), 『독서토론과 연계한 대학글쓰기 수업의 효과』, 『독서연구』 26, 한국독서학회.

글쓰기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독서토론과 병행한 글쓰기가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3시간의 수업으로는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 향상에 어려움이 있음을 밝히고 비교과 독서 프로그램과 피드백이 충분히 일어나는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내관·이영조²⁰⁾도 『배재대학교 교양 글쓰기 과목의 운영 체계와 발전 방안 모색』에서 의사소통 역량의 통합을 추구하고 있지만, 『사고와 표현』 교과목이 글쓰기에 치중되어 읽기·말하기·쓰기 등을 해결하기가 어려웠다고 전하고 있다. 그것은 2시간이라는 시간의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 교과목의 통합은 어느 특정 역량에 우위를 둘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게 된다.

“Ⅲ. 평가 및 방향”에서의 ‘학습자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현재 경남대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독서량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²¹⁾ 독서에 대한 관심도가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텍스트를 읽고 비판적이고 논증적으로 글을 쓰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먼저 독서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킬 수 있는 커리큘럼 확보가 우선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교양교육의 의사소통교육 통합 과정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긴 지문이 늘어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화된 방향과 같이 고도의 지식정보사회일수록 고급 문해 능력을 함양하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 시험에서도 고등 문해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문해 능력은 문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20) 이내관·이영조(2017), 『배재대학교 교양 글쓰기 과목의 운영 체계와 발전방안 모색』, 『교양교육연구』 11(1), 한국교양교육학회.

21) 조아라(2016)는 『독서 토론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에 따른 운영 및 효율화 방안』이라는 글(p.44)에서 2015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발표한 “2015 대학도서관 통계분석 자료집”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있다.

수리, 과학, 경제, 사회와 인터넷 등에도 문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문해 능력을 기르기 위한 기초 문해 교육은 문자로 된 독서를 통해서 다져져야 한다는 전제를 배제할 수가 없다. 대학의 교육은 인문학적 소양을 기저에 깔고 전공을 학습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므로 정치, 철학, 경제, 사회, 교육, 의료 등의 다양한 분야를 읽고 쓰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읽기 역량을 함양했을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제 4차 산업혁명의 지식정보기술사회에서 가치를 창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논리와 창의를 갖추고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충분한 숙고 과정을 거칠 수 있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읽기 역량이 필요하다. 과학기술, 인문학, 예술, 사회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지적 이해능력은 읽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로만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학 안에서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역사 속에서 역사의 큰 방향성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철학을 통해 당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깊이 읽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량이 갖춰질 때 <독서와 토론> + <쓰기>의 통합교과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특성상 입학생의 학력수준저하에 대한 우려가 표명되고 있다. 앞에서 이은주(2011)가 주장하는 대로 통합교과목의 시간부족을 귀담아 듣는다면 '읽기-말하기-듣기-쓰기'의 통합교과가 내실은 없고 가시적인 결과만 내어놓을 것은 아닌지 한 번 고민해 보아야 한다. 현재 순천대학교는 2015년부터 <독서와 표현>이라는 의사소통 영역을 <독서와 생각하기>, <독서와 말하기>, <독서와 글쓰기>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학의 의사소통 교육과정이 통합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세부 교과로 나누어져 개설되고 있음이 순천대학교의 현주소이다.²²⁾ 따라서 통합하

22) 박길희(2017), 「<독서와 표현> 영역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 순천대학교 <독서와

기에 앞서 주변 대학들의 다양한 사례를 접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3. 제안

대학 의사소통 교육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바로 글쓰기 클리닉이나 글쓰기 센터와 같은 글쓰기 전담부서의 운영이다. 학생들의 글쓰기 교육을 지원할 글쓰기 전담부서를 운영하여 글쓰기 침식 및 상담지도를 지원하는 대학이 많다. 글쓰기 능력이 대부분의 대학 교양교육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인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움직임은 그것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²³⁾

대학에서의 전공과정을 이행하고 추리력과 창의성, 비판력을 함양한 표현역량은 통찰력 있게 읽어낼 수 있는 독서력에서 기인한다. 이는 다양한 읽기 자료가 선행되는 것이 우선이므로 새 통합교과의 고민과 함께 경남대학교 독서교육의 프로그램과 체계화를 점검하고 독서교육의 질 향상을 고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쓰기 역량 강화’에만 치우쳐 있는 경남대학교의 <글쓰기 센터> 명칭을 충북대(<의사소통혁신센터>), 서울시립대(<의사소통교실>), 원광대(<의사소통교육센터>)와 같이 ‘쓰기와 읽기, 말하기, 듣기’를 수용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쓰기와 함께 읽기와 말하기 역량을 강화할 시책이 절실하다.

다른 대학들과 달리 경남대학교는 ‘읽기’ 역량에 관련된 비교과 수업이나 학생들의 독서 환경 개선을 조력할 조직이나 기관이 없으며, ‘독서인증제’나 ‘독서활동’을 지원하고 전담하는 부서 또한 없다.

표현>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1(1), 한국교양교육학회.

23) 김화선·이희영, 앞의 논문, p.103.

대학	독서활동/ 비교과프로그램	대학	독서활동/ 비교과프로그램
배재대학교	- 독서에세이 감상 및 상담 - 주시경 독서에세이 대회 - 읽기 인증제 - 한힌샘 책다방, 북쉐어링	영남대학교	- 명저100선 읽기와 토론
가천대학교	- 가천인 독후감 대회 - 가천 유니온 독서토론대회	경남대학교	- 중앙도서관 인문독서동아리
건양대학교	- 독서활동 아테네 학당	숙명여대	- 인문학독서토론
계명대학교	- 독후감 경시대회	대전대학교	- 독서토론대회
목원대학교	- 리딩북원 독서인증 - 리딩북원독서에세이 대회		

위의 표는 다른 대학의 독서 관련 활동이나 비교과프로그램을 정리한 것이다. 대학의 의사소통교육의 초창기에는 글쓰기 교육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러다가 기초글쓰기에서 도달하지 못하는 의사소통교육목표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독서와 말하기 영역을 통합하였다. 지금은 독서와 연계된 심화글쓰기를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각 대학은 독서를 확대하여 읽기 역량을 갖추도록 비교과 교육 과정을 활성화하는 추세이다.

경남대학교가 읽기와 쓰기를 통합하여 비판적이고 통찰력 있는 사고력을 요구하는 심화 글쓰기를 운영한다면 다른 대학들과 같이 읽기 역량을 증가시킬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조직 지원과 독서를 장려하는 다양한 독서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양필수형 교과목의 다양화와 선택적 필수화 추진 과정에서 화두가 되는, '비판적 읽기나 사고하기'는 학생들이 독서하는 단계에서 비판적으로 읽고 사고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수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논리적으로 말하는 방법 또한 새로운 교과목 편성보다는 교수자의 역량으로 올바른 화법과 앞뒤의 귀결이 맞게 말하도록 이끌어내는 교수방법이 더 중요할 것이다. 덕성여자대학교는 『이해와 소통 I·II』 과목을 20명으

로 제한하는 소규모 수업을 한다. 이는 국내 대학에서는 극히 더운 경우이다.²⁴⁾ 경남대학교도 더욱 소규모·개별화 수업으로 특성화하여 학습자의 역량을 강조한다면 의사소통 영역 중 개별 학습자들에게서 부족하게 나타나는 요소도 파악되어 학생들에게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방법적 차원을 개선할 교수학습과정을 재설계해야 한다.

IV. 나가기

이상으로 경남대학교의 의사소통교육의 현황 분석을 통하여 <독서와 토론>의 위치를 점검하고, <독서와 토론>이 쓰기 역량과 통합 가능한지를 논의해 보았다. 여느 대학들과 같이 경남대학교도 쓰기를 중심으로 한 의사소통교육에서 2005년 교양학부의 출범으로 대학의 교양교육에 읽기와 말하기 역량을 함양할 과목을 편성하여 개설하였다.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 경남대학교는 학생들이 융합적이고 주체적인 의사소통 주체가 되도록 미흡한 기초글쓰기를 보완하고 학습자의 요구에 맞는 글쓰기를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에는 대교협과 각 대학의 의사소통교육 목표와 직결된다. 첫째는 제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융합적 인재를 기르고자 함이며, 둘째는 이러한 통합교과가 교양인문기초소양을 더욱 함양하는 가장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다.

발표자는 이에 대해 독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과학기술의 가치를 발견하고 고급 문해 능력의 함양과 종합적인 지적 이해능력이

24) 박영기(2015),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독서세미나와 글쓰기 연계 수업 사례 연구』, 『대학작문』 13, 대학작문학회.

독서에 기인함을 밝혔다. 따라서 경남대학교의 지역적 특성상 통합보다는 의사소통 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분화된 교수과정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과 교수방법에 대한 고민이 더 시급함을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경남대학교의 교수과정 상 1학년은 <독서와 토론>을, 2·3학년은 <창의글쓰기>를 거치고 있으므로 이를 거친 학생들이 말하기·읽기·쓰기·듣기의 각각의 역량이 개발된 이후 심화된 통합교과를 시행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타 대학들이 시행하고 있는 여러 독서 관련 커리큘럼을 경남대학교에도 접목하여 학생들의 읽기 역량 증강을 위해 고민해 주길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 경남대학교 교양기초교육원 독서와 토론 교재편찬위원회(2017), 『교양인의 독서카페』, 경남대학교출판부.
- 구자황, 「대학 글쓰기 교육을 위한 예비적 고찰」, 『어문연구』 53, 어문연구회, 2007, pp.279-298.
- 김희선·이희영, 「대학 글쓰기교육의 현황 진단과 발전방안 연구」, 『대학교양교육연구』 1(1), 2016, pp.93-114.
- 도정일, 「실천 인문학의 한 방법-사고와 표현은 왜 중요한가」, 『사고와 표현학회 창립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사고와 표현학회, 2007, pp.5-11.
- 박길희, 「<독서와 표현 영역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순천대학교 <독서와 표현>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1(1),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pp.699-734.
- 박영기,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독서세미나와 글쓰기 연계 수업 사례 연구」, 『대학작문』 13, 대학작문학회, 2015, pp.95-124.
- 송주현, 「대학글쓰기에 대한 반성과 발전적 수업을 위한 제언」, 『교양교육연구』 10(1), 한국교양교육학회, 2016, pp.265-293.
- 신희선, 「대학 교양교육에서 <인문학독서토론> 수업 사례」, 『사고와 표현』 5(1),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12, pp.7-46.
- 이내관·이형조, 「배재대학교 교양 글쓰기 과목의 운영 체계와 발전방안 모색」, 『교양교육연구』 11(1),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pp.647-676.
- 이상원, 「성인 대상 독서토론 강좌의 설계, 운영 그리고 고려점」, 『사고와 표현』 8(2),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15, pp.189-218.
- 이은주, 「독서토론과 연계한 대학글쓰기 수업의 효과」, 『독서연구』 26, 한국독서학회, 2011, pp.501-516.
- 이희영, 「표현주의와 인지주의 통섭적 글쓰기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정희모, 「대학 글쓰기 교육의 현황과 방향」, 『작문연구』 1, 한국작문학회, 2005, pp.111-136.
- 조아라, 「독서 토론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에 따른 운영 및 효율화 방안」, 『교양교육연구』 10(2), 한국교양교육학회, 2016, pp.43-71.

- 최종철, 『한국 대학 교양교육의 역사와 교훈: 1970년대 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1), 한국교양교육학회, 2007, pp.209-232.
- 홍성기, 『교양교육 평가방안 연구 - 교양교육내용 평가준거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6.

Abstract

Integrated Review and Direction of <Reading and Discussion>
and 'Writing' in Kyungnam University

Cho, Seong-sook

It has been mentioned that education should adapt to rapid changes of the industry. Kyungnam University is paying attention to evaluation of K-CESA and is considering changes in the communication area. In particular, the ability to write and speak was found to be insufficient in Kyungnam University. Countermeasures to this situation should be prepared. At present, the general education in Kyungnam University is pursuing the curriculum called 'Integrated Communication Area of Reading - Speaking - Listening - Writing'. The intention was to strengthen basic general education based on capability by modularizing four competenc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ays to integrate 'reading and discussion' course and 'writing' competency.

First, historical trends of communication education at Kyungnam University were investigated. Next, characteristics of learners and instructors, structure of the textbook, and teaching methods were examined using nine essential evaluation factors of communication education of provided by the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General Education. Based on results obtained, it was found to be difficult to realize the integrated curriculum at Kyungnam University. This study emphasizes that it is more urgent to adopt differentiated teaching process to enhance each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consider teaching methods rather than to integrate local characteristics of Kyungnam University.

Key Word : reading, discussion, writing, speaking, communication education,
integrated curriculum

조성숙

소속 : 경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전자우편 : jss6615@naver.com

이 논문은 2018년 7월 30일 투고되어
2018년 9월 3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8년 9월 7일 게재 확정됨.